

여야, '국정원 국조' 23일까지 8일간 연장

청문회 14·19·21일 3차례 실시...23일 결과보고서 채택

증인채택, 원세훈·김용관 확정 김무성·권영세 이견 여전

애초 오는 15일까지 하기로 했던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이 오는 23일까지 8일간 연장됐다.

이를 위해 여야는 오는 9일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13~14일 본회의를 열어 연장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조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영세,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경래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특위는 또 기존 7~8일 이틀 동안 실시기로 했던 청문회를 오는 14일,

19일, 21일 사흘에 나눠 실시하고, 오는 2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핵심쟁점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7일 오전까지 협의해 확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과 청문회 일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채택을 확정했으며 이들의 불출석 시 동행명령·고발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 없이 팽팽한 상태"라면서 "내일 증인 합의문에 양당의 주장과 함께 계속 협상한다는 정도로 답아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7일까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에 대한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이날 합의한 국조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회 일정을 간격을 두고 정한 것도 향후 증인 채택 협상과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증인 출석과 증인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허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 증인 채택과 관련, "20%밖에 합의가 안 됐다. 양당의 견해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날 4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 '원세훈-김용관' 증인채택 및 출석 담보 ▲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여야 잠정합의안 추진을 시도했으나 당내 최고위원회에 결정권을 위임했다.

이에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최고위원·국회 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어 최종 의견 수렴을 했고 일단 원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인 채택 및 증인 보장, 기간 연장을 얻어내는 선에서 국조를 정상화하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추가 증인채택을 계속 요구하기로 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국조 판을 깬다는 발미를 주지 않으면서도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 요구를 내세워 장외투쟁의 동력을 살려가야 한다는 점을 관철하기 위한 교육책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원세훈-김용관'의 국회 출석이 무위로 돌아가거나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이 끝내 불발될 경우 더 이상 국조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 차원의 '비상한 결단', 즉 전면적 장외투쟁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일 오후 광주 북구 새누리당 광주시·전남도당 당사 앞에서 한대련 8·15 청년통일대행진단 소속 대학생들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기춘, 공안정치 신호탄인가”

민주, 이틀째 청와대 인사 맹공...여당내에서도 “당혹스럽다”

민주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청와대 일부 개편에 대해 이틀째 맹공을 퍼부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임 김기춘 실장에 대해 “70~80년대 과거회귀형 인사이고 공안정치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박

경수의 아침저녁'과의 인터뷰에서 “김 실장이라고 하면 유신과 공작 정치가 뇌내일”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과연 원로를 전면에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

갈지 걱정이 많다”고 가세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과연 야당을 상상과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경험이 전무한 직업의교관 출신인 박준우 청와대 정부수석의

임명에 대해서도 양승조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야당의 가교 역할이 라기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앵무새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하태

열 전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교체 배경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새롭게 선임된 비서실장 및 나머지 수석들에 대한 인사 방향성도 종잡을 수 없어 어떤 의미였는지 당혹스럽기 짝이 없었다”며 “당황 그 자체였는데 우리 반, 기대 반”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 실장 임명에

대해 “야당이 펄펄 뛰는 심정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김 실장의 유신헌법 실무작업, 정수장학회 장학생 이력 등을 문제삼는 것과 관련, “야당이 처음부터 실장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 마당에 정국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데 김 실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조심스럽게 지켜볼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이 당사자였던 '초원복직' 사건에 대해선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일을 현직 고위공직자들이 했다는 것이 국민에게 충격적이었다”면서 “김 실장께서 경제상황을 극적으로 돌파해내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그때의 죄를 씻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사초증발, 절대 있어선 안될 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 “중요한 사초(史草)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알려진 사건들만 봐도 다시 있어선 안 될 잘못된 사건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변화는 과거 잘못

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 새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검찰 수사 의뢰를 계기로 정치권이 '사초 증발' 논란에서 한 발짝 물러선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또다시 정면으로 지적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수십 년간 축적돼온 이런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부패 등을 바로 잡아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가 가진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 변화와 도전에 적극 나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정호준 의원

민주당은 6일 '귀태'(鬼胎) 발원 파문으로 원내대변인직에서 물러난 홍익표 의원 후임으로 정호준(42) 의원을 임명했다.

서울 중구가 지역구로 초선인 정 의원은 외무장관을 지낸 고(故) 정일형 전 의원과 이화여대 교수를 지낸 고 이태영 박사의 손자이자 민주당



정책 의지를 잘 대변하겠다”며 “중산층·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품격 있는 언어로 정치를 한단계 높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한대련, 광주서 '국정원 규탄' 전국행진 시작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회원들로 구성된 8·15 청년통일대행진단이 6일 광주를 시작으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전국 행진에 나섰다.

한대련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는 15일 광화문 인근에서 예정된 '국정원 해체 10만 촛불대회'(가칭)에 동참할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한대련은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정원 사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 10만명에게 시국선언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대련은 이날 새누리당 광주시당사를 향해 물풍선을 던지고 물총을 쏘는 퍼포먼스를 한 뒤 급남로까지 행진을 이어갔으며 경찰과의 큰 충돌은 없었다.

한대련은 오는 15일까지 대전, 대구, 부산 등지를 돌며 선전전을 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료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료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p>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p> <p>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p> <p>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p> <p>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p>	<p>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p> <p>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p> <p>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p> <p>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p>
--	---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료가 & 분양가

<p>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p> <p>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p> <p>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p> <p>지상1층 지상1층 현대폰매장 22P</p> <p>지상1층 미용실 23P</p> <p>지상1층 약국 69P</p> <p>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p> <p>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p>	<p>지상2층 PC방 203P</p> <p>지상2층 레스토랑 166P</p> <p>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p> <p>지상2층 한정식 387P</p> <p>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p> <p>지상3층 일식 387P</p> <p>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p> <p>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p>
---	---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텐터타운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